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상업+문화+도시디자인=도시재생



노경수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불거리, 쇼핑 등의 상업활동, 사람 중심의 광장, 보행자전용지구 등 물리적 환경,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경쟁력을 갖는 도심재생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도심활성화사업은 공공재민 및 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해 보도나 가로등과 같은 단순하고 물리적인 시설개선에 국한돼 왔다. 특히 주거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투자기업의 참여에만 의존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50층, 60층의 초고층 건축물이나 과도한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재개발계획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안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를 오히려 공동화시키면서 낯설고, 정체성 없는 '복사판' 공간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광주의 도심활성화를 문화중심형 재생수법과 연계해보기 위해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던 중 지난해 초 광주발전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영국도시건축연구소 어번플라즈마 양도식 박사가 발표한 '문화중심형 도시재생의 과제와 전략: 영국의 중소도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강연을 듣게 됐다.

영국의 도시에서 성공한 도심재생사업을 살펴보면 단순히 대규모 상업시설만이 아닌 '문화와 상업활동의 결합'과 여기에 인간중심의 공공공간,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디자인과 도시(공공)디자인에 의해 창출된 장소성이 필수요소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심재생전략은 가까운 일본 도쿄의 후쿠키 힐스나 규슈의 커널 시티 등에 적용됐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수법이다.

영국 도심재생사업의 성공요인이 광주의 도심활성화에 주는 시사점으로, 먼저 공공의 '결

단력과 리더십'을 들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공공의 리더십은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재생사업구역 내의 민간·공공·시민단체·주민조합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간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공공의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도심 공공공간 조성과 보행화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나섰다.

주민과 시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고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노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영국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접근인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의 전략적인 유연성은 사업의 추진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허가와 규제는 사업의 시간과 재원의 분배, 그리고 장기적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역사적 건물 및 경관의 보존과 재생사업이 서로 상반되는 정책으로 대립하는 경우에 참여와 협상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스템 구축이 사업추진의 중요한 관건이 됐다. 우리 역시 문화의 전당 건립과정에서 부각된 보존과 철거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물리적 환경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제조건이다. 땅값

이 높은 도심에서 사업성을 전제로 한 개발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많은 광장과 보행로 그리고 공공공간을 계획했고, 이에 대해 민간은 과감하게 재원을 투자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수준 높은 물리적 건축·도시환경은 경제·사회적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세계의 금융중심지 런던의 한복판에 조성된 브로드웨이 재생사업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런던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을 조성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도 상업시설 위주의 도심재생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불거리, 쇼핑 등의 상업활동, 사람 중심의 광장, 보행자전용지구 등 물리적 환경,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경쟁력을 갖는 도심재생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 광주의 도심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시범지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다. 행정이 주도해 앞서나가면서 사업의 진정성을 제시하고 주민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것이다. 문화중심도시추진특별법에 마련돼 있는 투자전략지구를 적극 활용해서 광주시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명소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정세완

벌써 4월이다. 청명이 지난 절기에 미시령에서는 눈이 내렸다는 뉴스가 있는 가하면 진도에서는 벚꽃이 만개하여 꽃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린다. 좁은 국토 안에 날씨는 천차만별이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깜짝 파티를 해도 붉은 오고야 말 것이며 세상이 잠시 어수선해도 시절이 지나면 잘못된 역사는 바로 흐르기 마련이다.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과 4·19의거 50주년, 6·25 전쟁 60주년이 되

는 고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고로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연기론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성인들이 보는 이 세상은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광범한 사물을 너무 외면하며 살아간다. 평화와 공존 생명과 상생을 이야기 하지만 막상 내 문제 우리나라 문제로 타치면 1

眞達來, 開裸里的 세상!

는 해이기도 한다. 세월의 무상함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건들은 잠시 잊혀질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또한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 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더라도 필경은 없어지고 마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원불교에서 4월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소태산 대종사는 4월 28일 이른 아침 깨달음을 얻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를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한 포대에서 나왔으며 이 세상의 모든 무유, 유유의 법들이 한 근원이라는 큰 메시지를 우리 모든 생靈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것이 있

는 고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고로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연기론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성인들이 보는 이 세상은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광범한 사물을 너무 외면하며 살아간다. 평화와 공존 생명과 상생을 이야기 하지만 막상 내 문제 우리나라 문제로 타치면 1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사무국장>

대형차 배기가스 배출구 뒷차 피해없게 개선해야

모든 차는 내부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개폐구가 있다. 특히 비나 눈이 올 때나 고속으로 주행중 창문을 열 경우 그 바람과 소음 때문이라도 차량 내부의 개폐구 장치가 절대적으로 유용하다. 그런데 승용차는 별 문제가 없으나 트럭과 버스들의 경우 일반 경유를 사용하는 관계로 그 배기가스의 유독성과 역겨움이 상당하다. 따라서 승용차의 환기모드를 '외부공기 유입'에 놓고 주행중 앞에 트럭이나 버스가

주행중일때는 서둘러 외부공기 유입장치를 닫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버스와 트럭의 배기통은 차의 뒷부분 아래에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고스란히 그 뒤를 따르는 승용차등에 뿜어져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버스와 트럭도 제작당시 이 배기통을 차량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소형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동동

기고



오재현

지난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큰 상심감을 주고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어 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지난 1일부터 변호사, 의사, 학원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아울러 현금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300만원, 연간 1천500만원 한도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의 20%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사업자가 현금 500만 원을 받고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50%인 25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20%인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 당연히 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사업자는 대부분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미 대상 사업자 모두에게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

직 사업자들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상심감을 주고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어 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지난 1일부터 변호사, 의사, 학원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아울러 현금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300만원, 연간 1천500만원 한도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의 20%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사업자가 현금 500만 원을 받고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50%인 25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와 세미레(稅美來)콜센터(☎ 126, 내선 2)가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요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사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꼭 챙길 가치가 있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기도 하다. 나아가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을수록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 공제와 복권 당첨의 행운을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0년을 숨은 세월 양성화 원년으로 삼고 탈세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또한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써 앞으로는 IT를 바탕으로 한 전자 세정의 발달로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리라 본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아래 공평과 세 실현과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광주지방공세청 신고분석과 과장>

시설

전남교육 황폐화 획일적 교사배정 안된다

올해 도입된 획일적 교사배정 방식이 전남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을 기존 '학급수+학생수'기준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전남교육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35%에 달하는 전남은 무려 714명의 교사가 줄어들었다.

교사 감소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정원이 급증해 학습 여건이 크게 악화됐으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삼치(相馳) 교사가 크게 증가했다. 교사수 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도교육청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60명을 추가 투입하면서 50여 명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나후면 각종 교육시설을 교체하는데 쓰일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뿌리 깊은 대형유통업체 횡포 근절책 없나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상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부터 재고 부담 떠넘기기나 관측 비용 부담 강요, 불필요한 판매 도우미 고용 요구, 납품단가 강제 조정, 판매 수수료율 인상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롯데아울렛 광주수안점에 입점한 한 아동복 코너의 예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이 아동복 코너는 임대 수수료로 매출액의 18%를 롯데아울렛에, 65%는 본사에 내야 한다. 여기에다 매장 관리비와 인건비까지 부담한다. 특히 임대수수료는 계약서상에는 소매 매출액의 18%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총매출액의 18%를 공제하고 있다. 매달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 같은 입점상들의 등을 휘게 하는 횡포는 롯데아울렛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형유통업체에 일반화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규모의 교원정원 축소로 내년부터 신규교사의 임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짧은 교사의 신규 임용이 막히게 되면, 전남지역 교사의 급격한 노령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과부의 획일적 교사배정 방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전남처럼 농산어촌·벽지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예외규정을 뒤 기존 학급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거나 '농산어촌·도서벽지 교사수 우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 학력 수준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도·농간 학력격차는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학력격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의 전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농어촌 학교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여건 개선 없이는 농어촌을 살릴 수 없다.

는 계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570여 개 납품업체를 서면 조사한 결과, 51개 대형 유통업체 모두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유통망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세한 납품업체나 입점상들을 쥐어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유통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영세상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영세 납품업체와 입점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도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도 납품업체와의 상생경영이 장기적으로 서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노인을 천덕꾸러기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 눈에는 노인들이 건망증이 심하고 불행하며 에너지가 고갈된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심리학자 4명이 공동집필한 '통속심리학의 50대 신화'는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단박에 뒤엎는다. 늙었다고 해서 모두 기억력이 나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여러 연구에서 노인이 젊은이 못지않게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한 사례에서 가장 행복한 집단은 65살 이상의 남자로서 나타났고, 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은 60대 후반부터 나이를 10살 먹을 때마다 5%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이런 행복감으로 인해 삶의 에너지도 오히려 증대된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예술가들이 평생 걸쳐 만든 작품 중에 60대 이후에 내놓은 작품들이 대표적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66살

에 작곡했고 소프라노는 75살에 '오이디푸스 왕'을 썼으며 괴테는 81살에 '파우스트'를 탈고했다. 앵그르는 대표작 '더기랑'을 82살에 그렸다.

최근 방영된 SBS TV 'SBS 스페셜' 기획을 부르는 백세인의 유머'에 소개된 올해 만 103세의 세계 최고령 현역 교육자 일본인 쇼치 사부로 씨는 노년의 행복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웃음의 힘은 100대의 불도저보다도 커요. 살짝 웃게 되면 100대의 불도저를 뒤집을 수가 있다"며 웃음이 장수와 행복의 묘약임을 역설한다.

노인에 대한 편견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노화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문제는 노화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와 극복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애에 대한 감사와 긍정의 마음가짐 속에서 웃음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다면 머지않아 노인들에 대한 편견도 사라질 것이다/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